# 사회적 약자의 고통 공감하며 희망 만든다

## ■ 신년회견으로 본 2013년 조계종 운영 방향

"0명곤 이웃을 함께…"

OECD 국가 중 최저시간 노동을 하고 자살률이 현저해 세계 9위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2011년 기준 10만명당 3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어려움이 처해 있다. 조계종은 부처님 가르침을 예개로 상처받은 현대인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한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특별행사로 태어 것을 통해 개인지시 대의 감동을 하고자 힘쓰기 위해 전국 단연 연계 해 실시 지원하고 전국 단체 등 대상으로 인문학 지원하기 위한 법률소비자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동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발족한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상담지원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며, 해월 3대 노동자들이 사법권도 보장한다.

사회적 약자 위한 프로그램은 100만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사회적 고통을 입고 있던 방황자들에게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상담치유센터 외에 을 모아들은 학교 선터는 열린 노동자 상담도 오랜 투쟁에서 해고 상처를 겪은 사람들 가족에 부응하여 나 자살방지로 고통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하는 이들을 전문한 학자나 스님 등 불교계 인 들의 자원자를 받아 상담자원의 참여 영역을 통해 의료센터를 위로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요 정기적으로 상담하기 국방한 노사 불가 분 장을 직장 찾아가서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말하는 사회를 위한 법률소비자도 시작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데 중단은 오랜 파업으로 지친 MBC 노조원과 가족들, 분규와 해고로 고통받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소비자를 진행했다. 당시 참가들은 "상담사가 먼저는 들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었다"며 연구원 반응을 보였다. 올해도 노동위원회는 연 4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소비자를 열고, 명상, 상담, 108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자는 3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종책원장 자승스님은 한해 불교의 사회적 활동을 강화방향을 피력했다. 사회의 약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희망을 함께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종단은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주체로서 종책원장인스님은 종교문화재단을 통해 한국 불교에서 스스로 희망을 만드는 종교문화재단을 대폭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종책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에는 노동자 종사실 법률을 개최하고 노동자 심리치유센터도 설치 운영하는 등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해결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계종 자성과 해신 감사위원장이 자는해 해결경험 사람 조계사에서 개최한 "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대대회." 모습.

실직자상 장애인 초청해

특화된 종스페이 개최하여

개인과 사회의 갈등 해소

월2회 노동자 동사설 법회

노동자 심리치유센터 운영

자살 학교폭력 예방 상담

연등회 및 전통사찰 구경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추진

불교의식 전통화 및 보급

사찰순행위 체험공개등

1차 해신과 계절별 법회

승가복 규정 제정도 정비

올해부터는 사회의 발등시킨 방해는 불보살의 공생의 간 해라 믿을 나눔 고 따라 전해를 함께 한다는 등 시설의 가르침을 현대 법의 구체한 지라고 노동위원회는 방황자 문제 해결을 위해 108배 장인을 현인 가운을 이어 을 정불력 등 사찰법회를 개발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지난해 가르침은 타종과 에서 이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쁨의 장하구역 서대문 신촌화 수녀 10여 명은 월 없을 때마다 사물대 한문 앞에서 마음을 보며, 계신 대사도 리 교회가 연대해 여주 기도원을 열고 있다. 불교에서도 동사설 방해를 통해 노동자에게 한발더 다가간다. 월정 방해를 통해 중단 소외감에 대한공감을 독송하며 노동기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사회복지대단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도적 공동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에게장애자 지원하고 농어촌 고단한 민간중에게 장애인지을 단보 없이 거주로 대출해주는 사업비리원을 마련

크로크해당' 사업을 자속해 나간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설립수준기, 자상의에 등,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동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에 희망을 전하는 복지관련사기도 하다.

또 상생한 사찰하대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시작한다. 포교원과 불교사회부 해방된 주축이 돼 자살방지센터를 운영하고,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청소년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제적 활동도 대비한다. 이를 위 등 행이 주축이 돼 이웃끼키 캐나다 학교 건 립을 추진하고 있고며, 북자대단은 몽골과 라오스에 각각 도량인데를 운영 중이다.

## ■ "전통문화 보존 활동"

1700년 불교에 대해 이어오면서 불교계는 오랜 생활력이 정해온 큰 부정한문제 보존하고 계승하는 여럽을 당당해왔다. 특히 종단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치를 넓히 알리 활동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조계종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12호로 지정하고,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전통문화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을 한 것이다. 2012년에는 국내 유네스코 등재(3명)을 한 것에  중연등회가 국가의 오로등록  신청을 한 것이다. 2013년에는 국가의 방황자 문제 해결을 위해 108배 장인을 현인 가운을 이어 을 정불력 등 사찰법회를 개발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지난해 가르침은 타종과 에서 이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쁨의 장하구역 서대문 신촌화 수녀 10여 명은 월 없을 때마다 교회가 연대해 여주 기도원을 열고 있다. 불교에서도 동사설 방해를 통해 노동자에게 한발더 다가간다. 월정 방해를 통해 중단 소외감에 대한공감을 독송하며 노동기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사회복지대단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도적 공동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에게장애자 지원하고 농어촌 고단한 민간중에게 장애인지을 단보 없이 거주로 대출해주는 사업비리원을 마련

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혜자는 불이나 유치해 있는 고통과 아픔에 함사을 공감하는 것으로, 불교라사회 결정해 활동 한다. 고이 때 서울으로 시행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혜자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종단은 수혜자 부흥단체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교대학에서의 한글화는 33대 정행부의 성과로 꼽힌다. 조계종 의해부원장는 반야심경, 칠정례를 한글로 펴고 한글은 수정을 통해 한글로 보급하고 있다. 일상생활으 사용되는 불교라사에 대한 한글화 작업을 갖고, 남은 과제는 보급이다. 교육원은 수강료 혜을 통해, 포교원은 신도교육을 통해 한글법불을 확산해갈 계획이다. 먼저 교육원은 "불교용어에 불

승가대학 발수교재도 정해 오는 그림부터 한다. 교육원 사찰에서도 한글의 의식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간다. 불교사회부는 "불교용어 한글화에 대한 의견을 개최하고 노동자 심리치유센터도 설치 운영하는 등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해결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계종 자성과 해신 감사위원장이 자는해 해결경험 사람 조계사에서 개최한 "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대대회." 모습.

활용방안 활화화 등을 모색한다. 불교문양 박물관에서는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을 시 발한다. 3년 계획으로 전국 3000여개 유물에 대해 학술사료를 수집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전통 및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을 벌여나간다. 이에서도 종단은 전통문화와 장신의 당신 사찰에 대 대중화 한 전통사찰의 현대화작업인 "천년에 계발 계발사업 이 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 ■ "지속적인 재신 추진"

자는해 조계종이 발표한 1차 해신정책는 사찰대중 공감을 통한 종단과 사찰운영,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신뢰성의 복원과 공명선거 실현, 원단 정정성 정책 등이었다. 이 를 위해 종단은 사찰에서 정책연합을 새로 제정하고, 사찰운영위원회, 종무원법을 개정해 해신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는해 제시한 해신정책에 차관년 정책으로 지원하고 정강한 는 것은 그만 입장부터 올해 해야 할 중요한과제들이다.

종단은 사찰대중이 사찰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찰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사찰의 정보공유위원기도 사용 및 임 수정 등 갈등이 빠르게 정책될 수 있도록 정경해간다. 사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전문종책원 교육기관인 종책평의회는 종책부기 발이 원하면 나간다.

해신위원회는 승가정화를 선거제도, 법계자격제도, 종행제도, 승려복지 등 3가 과 신인도 증대도 현행지다 선제 교구를 종심 하는 법 등 현행법, 종책원장선정 개정안이 이뤄진 오는 2월 임시종의에 상정해 해결하다. 특히 현대사회의 있는 스님들의 생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정규정도 오는 5월부턴 가사정립 것으로 보인다. 참규 논스 방향이 등 실천적 분야와 승가회 위 의를 지키기 위한 제한 방안도 나타지게 된다.

자는 3년간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를 정리, 확산시키는 것도 중점이다. 지난해 시작된 승려노후복지제도를 정착시키고, 종단과 교구별로 승가복지기금 양주도 진행해야 한다. 사찰행정체계를 중단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구행정체성화와 효과적인 전법을 위해 교구별 지원시스템 구축도 있다. 지원교구에서 사찰도는 주지 인 입대대표 교구로 확보시키고 사찰등급 현상를 통한 항의표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사찰운지대분들 신도 도시 교육 등 중단 목적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33대 집행부가 희망해야 할 일이다.

이한경 기자 ainsa@ibulgyo.com


2013년

#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吾事一日持戒以死 不顧百年破戒而生"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계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백년 동안 파계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

"佛之宗旨 國之大綱" 계율근본도량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에서는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승가의 청정지계 가풍을 확립하고자 2013학년도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및 연구과정 신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스님들의 많은 동참바입니다.

■ 입방 및 지원자격
- 전문과정(2년) : 대학졸고제중 승려로서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을 마친 비구 및 2012년도 비구계 수계 예정자.
- 연구과정(3년) :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모집인원 : 전문과정 이명, 연구과정 이명

■ 모집일정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3. 2. 28**日, 음력 1. 19 (전산이 정정 또는 구제 접수가능)
- 전형및면접일 : 2013.2.28(목), 오후 1시 0.1.19
- 면접장소 : 율학승가대학원 큰방
-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승려증서(전문과정 승려증서)
- 출입증명서
- 은사 및 장주스님 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종합병원)
- 자기소개서 각 1부
- 사원비 ×3 5백

■ 문 의 처 : 055382-8346(율학승가대학원)
055382-7182(통도사 종무소)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통도사 주지 圓山 道明
율주 中山 慧南 율학승가대학원장 又常 德文